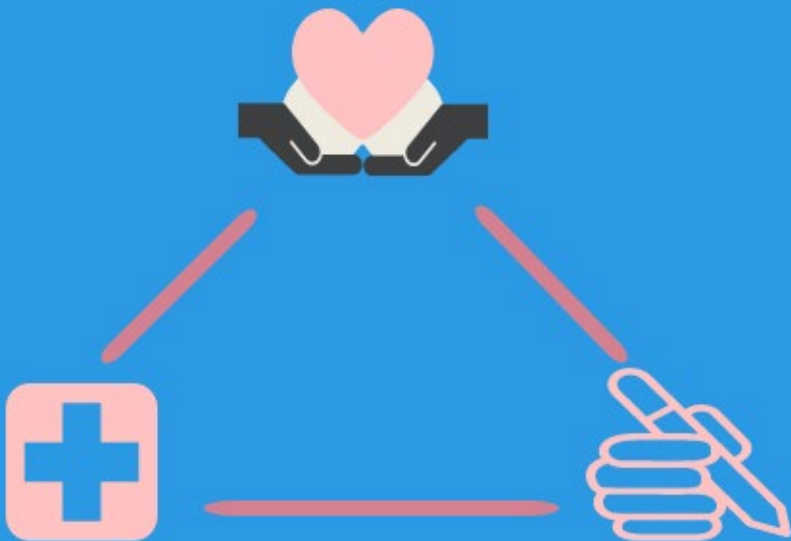


차 의과학대학교

2019

보건복지행정학과
학과 소식지

1학기



INDEX

2019-1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행정학과



01

1
목차

02

2
학과 소식

03

3
기관 방문

04

4
학생 인터뷰

1

목차

HISTORY

- | | |
|-----------|--------------------------|
| 2.28-3.1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 3.6 | 편입생 설명회 |
| 3.20 | 학생회, 학과대표 회의 |
| 3.25-29 | 슈퍼워크 |
| 4.13 | 기관방문-신촌세브란스병원 |
| 5.10-11 | 교수-학생 합동 워크샵 |
| 5.15 | 체육대회 |
| 5.16 | 스승의날 |
| 5.24 | 기관방문-(주)한랩 -한미약품 팔탄공단 |
| 5.29 | 기관방문-오송생명과학단지 |
| 6.11-6.12 | 햄버거 데이 |
| 6.13 | 졸업생 특강 |



2 학과소식-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28일 보건복지행정학과 19학번 신입생들이 처음 학교에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와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학과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육대회



5월 15일 학교 체육대회에 보건복지행정학과가 참여했습니다! 계주, 미션 줄다리기, 삼각 줄다리기, 협동 공 튀기기 등 다양한 종목에 참가해 우리 보건복지행정학과의 단합력과 승부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에서 함께 웃을 맞춰 입고, 아기자기한 악세사리를 한 귀여운 19학번 학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모두 해솔마당에 모여 학생들의 잠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장기자랑 시간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을 가져 선후배간 허물없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들도 함께 나와 공연을 보시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승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 학생회가 교수님들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체육대회가 진행되어 이후에 마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다육식물과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늘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고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는 교수님들께 작게나마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궁금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더 멋진 인재가 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18학번 이OO



편입생 설명회



3월 6일에 편입생 설명회를 진행하여 이번 학기 편입한 학생들을 만나 학교 규정 및 학과 내규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점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학과 행사와 학교 수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교수님께 여쭙보고, 교수님은 자세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편입생들도 보건복지행정학과의 일원이 되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갈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학생 합동 워크샵



학생회-학과대표 회의



3월 20일, 학생회와 각 학년 대표들이 교수님과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기동안 학교에서 진행될 행사와 학과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한 학기 동안 학과를 위해서 일할 학생회와 학과 대표들을 격려해주셨고, 학생들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0일~11일 1박 2일간 교수-학생 합동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가평 실로암펜션에서 합동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첫째날 학생들과 교수님이 모두 모여 실로암펜션으로 갔고 저녁식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 바비큐파티를 하며 학과 생활과 공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수님들 역시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주셨습니다. 식사 후에 강당에서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그간 잘 알지 못했던 학과의 선후배들을 만나 얼굴을 익히고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도 함께 해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 거리를 좁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선후배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학과와 진로 공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학생 합동 워크샵은 중간고사와 학교 행사로 지친 학생들이 이번 합동 워크샵을 통해 학교 생활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분전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졸업생 특강



6월 13일 보건복지행정학과 졸업생이신 06학번 박은경 선배님이 학교를 방문해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배님은 재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닐 때의 선배님의 모습과 학교를 다니며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던 학생들에게 졸업 후의 미래 설계와 미래 계획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노력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행정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의 학창시절 발자취를 통해 학생들에게 열린 시야를 제공해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고 각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전공 외에도 우리 학교에서 배울 것이 많고,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학번 김OO

햄버거 데이



6월 11일~12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건복지행정학과 햄버거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곧 있을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지쳐있을 학생들을 위해 햄버거를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전환해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햄버거와 콜라를 제공하고 서로 모여 함께 먹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했는데 햄버거를 먹으면서 동기들,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오랜만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9학번 이OO



한미약품



5월 24일 오후에는 한미약품을 방문했습니다. 팔탄 공단은 팔탄에 위치한 한미약품의 제약공장입니다. ICT 기술에 근거한 스마트공장으로서 제조서부터 보관, 유통까지 자동제어 공정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초의 스마트 공장입니다. 보건복지행정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이곳을 방문해 담당자 분에게 한미약품과 팔탄 공단에 대한 소개를 듣고 스마트공장 내부를 견학하면서 제약의 여러 공정 단계를 설명과 함께 관찰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보건전문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현장을 방문하는 경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는 보건실무인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16학번 김OO

오송생명과학단지



5월 29일 보건복지행정학과 1학년 학생들이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전공과 연계된 공공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기관을 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학생들을 위해서 오송 생명과학단지로 가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인 허가,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입니다. 보건의료 행정타운, 연구지원시설, 첨단의료 복합단지, 생산시설, 정주시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기관 소개와 주요 사업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첨단의료기기 센터시설을 직접 탐방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기관의 소개를 들어보고 첨단의료기기를 직접 관찰하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현직 전문가를 통해 미래 취업 방향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 한랩



5월 24일 오전, 4학년 학생들이 (주)한랩에 다녀왔습니다. (주)한랩은 진단검사에 필요한 기기, 시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은 '자동평형 원심분리기 Labmaster® ABC'가 있습니다. 보건복지행정학과 4학년 학생들은 기관을 방문해 회장님이 직접 소개하는 한랩을 들어보고 자동평형 원심분리기의 역사와 제품 제작, 설계 과정을라운딩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며 학생들은 실무에 한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



4월13일 4학년 학생들이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곧 취업을 앞둔 보건복지행정학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관을 직접 둘러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촌세브란스 서울역 검진센터와 국제팀, 외래업무팀을 방문하고 응인 동백 세브란스 준비팀을 보며 취업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지난 3년간 보건복지행정학과에서 들었던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병원현장에서는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상을 원하는 지 직접 알아보고 취업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보건복지행정학과 4학년 학생들은 보건복지전문 실무 인재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의 취업이 더욱 가까워지고 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 꿈과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16학번 이OO

SUPERWEEK



Q. 슈퍼위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슈퍼위크는 학생들의 행복과 앞으로의 진로탐색 기회를 위해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1학년 신입생 친구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센터와 학과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합니다. 저도 1학년 때 슈퍼위크에 참여했었고, 슈퍼위크때 했던 활동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보건복지행정학과 17학번 김 00

Q. 슈퍼위크를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A. 슈퍼위크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선 학과 동기들과 단합심과 형동심을 얻을 수 있었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에게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주일동안 학과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를 알아가는 데에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보건복지행정학과 19학번 정 00

Q. 슈퍼위크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일주일동안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대학생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레크레이션에도 참가하고 종합성격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학과에서 주관했는데요, 수요일에는 미술치료학과와 학과 대항으로 미니 올림픽을 했습니다. 동기, 선배들과 아직은 좀 어색했는데 함께 뛰어놓고 같은 팀으로 경기를 하며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함께 모여 파이팅을 외치며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마선임파서블을 통해서 학교 곳곳을 찾아가서 미션을 수행했는데 저는 학교잔디밭에서 학과선배를 찾아서 같이 셀카찍기였습니다. 목요일에는 교수님과 함께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전공과 관련된 기관을 알아보고 포천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저는 포천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미래에 제가 어떤 일을 할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와서는 10년 후 2029년의 저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29년에 직장에 다니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제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금요일에는 동기들과 함께 '슈퍼스타 CHA'에 참가했습니다. '슈퍼스타 CHA'는 신입생들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학과는 팀별로 나누어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며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건복지행정학과 19학번 이 00